

姜斗錫



## 自然과 藝術

人間은 文明을 등지고 살기 어려우며 따라서人間은 自然을 떠나서는 더욱 살수 없을것이다. 그러기에 자연과人間은 自然을 사랑하면서 文明을 憧憬하는 것이다 都市사람은 자연을 회구 하면서 한포기의 花盆을 가꾸기에 그토록 애써 가르며 山과 바다로 自然을 즐겨 찾는다 農村사람은 都市의 文明을 부러워 찾아드는것도 그러한 보기이다.

自然과 文明은 서로 概念이 相反 이면서도 그 본질은 같이하고 있는것이다. 自然이란 원래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狀態 본질 그대로의 狀態를 뜻 할것이며 文明이란 人爲的인 自然이 아닌 文明이란 人工에 의한 造作된 自然의 相反的인 現象이다.

人間은 끊임없는 努力과 지혜를 다하여 自然을 정복하여 文明의 慾望을 이룩하기에 오늘의 高度화된 機械化時代 科學化時代 宇宙時代를 向하여 人間은 自然을 侵害하여 가면서 온갖 文明은 자연회손의 公害時代로 물고 온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文明만을 願하는 것도 아니고 文明만이 人間을 幸福하게 할수도 없다.오늘의 文明은 人間에 많은 惠澤을 주고 편의를 가져다 준것은 事實이나 反對로 해독을 주는것도 사실이다. 文明의 폐수와 汚物 여러가지 物心兩面의 公害는 人間의 願하는 文明만은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文明과 自然은 地衡을 서로의 적정한 수준과 한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한계는 人間의 가장 지혜로운 賢明한 判斷이 要求될 것이다. 우리의 造形藝術이 또한 이에 못지않게 自然과의 均衡된 調和가 要求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間은 일찌기 自然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水平線을 표시하는 直線 日月을 따르는 圓 낮과 밤의 動과 靜 이러한 萬有에 처한 예리한 感覺은 어떤 慾求로 變하여 이것이 模倣과 考度이 創意로서 그 自体의 本体

를 교묘하게 形態를 人間에게 가장 痛切하게 裝飾한 것이 建築藝術인 것이다. 이러한 慾望은 人間의 精神的 소산물로 더욱 요구하게 된다.

어느 詩人이 말하기를 詩는 마음의 方向이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建築의 사상은 內의方向이다(WITHIN) 內的이라 함은 마음에 통하는 것이다. 이 內的마음은 自然에서 始初로 연유되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自然의 그 깊은 뜻을 다 알수 없으며 이해 할수도 없다. 人間은 自然을 理解하기 爲하여 努力 할뿐이다. 藝術은 自然의 모방이라 한다. 아름다운 自然은 藝術과 로맨스의 母性이다. 그러므로 自然은 名畵의 素題가되고 詩人의 素題가 되어 아름다운 律動을 가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生動하고 鼓舞 시켜준다.

가을의 가랑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自然의 음율과 人生의 회의를 느낀다 휘 늘어진 강가의 버드나무에서 자연의 浪漫을 느끼며 조그마한 들에서 자연의 無限한 年輪과 審美을 느낀다.

참으로 自然自体가 藝術인 까닭이다.

藝術은 創造인 同時에 오락이다. 이는 모두 우리의 周圍環境에서 순전한 精神的 遊戲로서 畵畵이든 建築이든 音樂이든 文學이든 그어떠한 藝術을 莫論하고 그것이 不朽의 創造的 제작이라면 모든 형식이 진정한 예술적 정신이 걸작을 남기겠다는 생각보다 다수의 民衆이 예술을 自己環境에서 즐기게 되었을때 비로소 보다 일반화하고 보다 보급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住居環境에서도 그러한 素題는 얼마든지 느끼며 얻어진다. 집을 選定하는 데는 집의 內部가 어떠한가 하는것도 重要 하지만 그보다 집안에서 내다본 전망이 어떠한가 하는것이 더 重要하다.

집이 都心地를 떠나 있다는것과 주위의 경치나 環境이 重要한것이다. 산기슭의 孤山村落에 많은 農民들이 山이

나 江이 넓은田園이 자기 정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万人의 所有임을 모르고 오직 自己만의 所有가 아님을 한탄한다. 경치가 더없이 아름다운 산중에 세워진 집의 경우 한조각의 땅을 自己所有로 하기 위해 담을 둘러 쌓을 必要的 조금도 없다. 집을 나서서 발걸음을 옮기는 곳 산위에 떠있는 흰구름과 하늘을 나는 새 우는소리의 자연 교향악 눈 앞에 전개되는 이 모든 경치는 전부 자기의 것이며 自然을 理解하고 對話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음은 富者이다. 都市의 어떠한 百萬長者도 따를수 없는 富者이다.

이 마음과 느낌이 人間만의 所有인 것이다. 이 느낌을 三者에 傳하고 表現한다면 이것이 芸術이 아니겠는가 마음과 느낌이 크면 클수록 걸작품이다. 都市에 사는 사람도 하늘에 흐르는 구름은 보겠지만 그들이 쳐다보는 구름은 靑山의 윤곽과 대조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구름을 바라보는 묘미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배경이 전혀 마련 되어있지 않은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人工의 자취는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않게하고 담벼락의 직선은 그 위를 덮는 나무가지로 가리거나 가로막거나 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 안에 歩道가있고 그 歩道는 구부러져야 한다. 歩道가 구부러진 모퉁이에는 장벽이 있고 그장벽은 나즈막한 것이어야한다. 장벽 뒤에는 臺地가 있는데 그대지는 平平 하지않으면 안된다.

臺地 양쪽으로는 담이 있으되 그담은 낮은 것이어야 한다. 담옆에는 한그루의 소나무가있고 그 소나무는 老松이어야한다 소나무 아래는 몇개의 바위가 놓여있으되 그 바위는 奇岩 이어야 한다. 바위 전편에는 정자가 있다. 亭子는 간소한 것이어야한다. 정자 뒤에는 참대가 있다. 참대는 낮게 퍼져있어야 한다. 참대 발이 끝나는 곳에 집이있다 집은 깊숙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안된다. 집 한쪽에 길이있고 그길은 몇갈래로 갈려 있어야 한다 몇

갈래의 길이 한곳으로 모이는 지점에 다리가있고 그다리는 매력적인 것이어야한다. 오작교라면 더욱 좋다. 다리를 건넌곳에는 나무들이 서있고 그 나무들은 喬木이어야 한다. 못의 폭은 좁아야만 한다. 못 水源에는 샘이 있다. 샘은 물이 용솟음쳐 나와야한다. 샘 우측에는 산이 있다. 산 기슭에는 서재가 있다. 서재(書齋)는 네모반듯 하여야한다. 서재 한모퉁이에 菜園이 있다 채원은 넓은 것이 좋다. 채원에 황새 한 마리가 있으되 그황새는 춤추듯 律動하여야 한다.

황새가 객이 온것을 알린다. 客이 오면 술이 나온다. 술은 사양 해서는 안된다. 잔을 거둬하는 동안에 醉興이 일어난다. 醉客은 집에 돌아갈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 마음껏 自然에 도취하며 새삼 삶의 즐거움을 느낄뿐이다. 조그마한 들에서 오묘한 자연의 심미를 느끼는것은 참으로 자연 자체가 예술인 까닭이다

신의에의해 창조된 신비의 예술인 까닭이다. 바람 흔들이는 나무 가지를 보며 萬物의 위대성을 깊이 생각한다. 꽃이 花益속에 있으면 생기가 없고 새가 조롱속에 갇히면 천연의 모취가없다. 산속의 꽃과 새는자연과 어울려 아름다운 문채를 짜내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에서 한없는 감명을 깨닫는다.

그러나 人間은 이 모든 자연의 이치를 잘 모른다. 소리 없는 말을하는 자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자연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는 人間이 自然과 같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진실 하여야한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자연에서 느끼고 배워야하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연에 순종 해야한다『자연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기만 하거나 失望 하기도 하지않는다』(東洋의 銘言에서) 끝

東南建築研究所